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토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선택받고, 다루심받고, 파쇄됨

성경: 창 25:22–23, 31:38–41, 32:22–32, 34:30

Ⅰ.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러므로 야곱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본다 — 창 25:21–26, 롬 9:11.

A.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셨다 — 롬 9:13, 말 1:2, 엡 1:4, 2:4.

B.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창세전에 선택받았다 — 창 25:22–23, 엡 1:4.

1.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것은 그 자신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었고, 그 자신이 분투하고 싸워서 얻은 결과도 아니었다 — 창 25:22–23, 26.
2.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부르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롬 9:11.

C. 야곱처럼 우리도 창세전에 선택받고 선정되었다 — 엡 1:4, 살후 2:13, 요 15:16상.

1.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역이시다 — 엡 1:4.
2. 하나님은 그분의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 — 벧전 1:2, 롬 8:29.
3.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로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단계에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임을 신뢰해야 한다 — 롬 9:11–13, 16.
4.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후 미리 정하셨고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 롬 8:28–29, 엡 1:5.
5.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택받고 부름받았다 — 롬 9:11, 딤후 1:9.
   a. 창세기 1장 26절이 계시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다.
   b.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여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될 때까지 그를 다루시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다 — 창 47:7, 10.

Ⅱ.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대표하는 삶이며, 야곱의 하나님은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다 — 창 31:38–41.

A. 하나님은 야곱이 평생 분투하는 삶을 살도록 정하셨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인생의 마지막까지 야곱은 계속해서 분투하였다 — 창 25:22–26, 27:1–29, 41–46, 28:1–5, 29:1–36:43.

B. 야곱의 삶과 체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본다 — 창 25:19–32:21.

1.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야곱의 삶의 여러 환경을 안배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야곱 위에 있으면서 야곱을 다루었다.
2.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신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 창 32:28.

3.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야곱은 여러 환경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루심을 받음으로써, 변화되고 성숙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다 — 창 35:10.

C. 야곱의 역사는 성령의 징계를 보여 주는 그림이다 — 창 47:9, 48:15-16상, 히 12:9-11.

1. 성령의 징계는 성령께서 우리의 바깥 환경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 곧 우리가 징계를 받도록 그분께서 모든 사람과 일과 사건을 안배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 롬 8:28.
2. 성령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창조물의 요소가 우리 안에 건축되도록 우리의 옛 창조물을 완전히 허무신다.
3.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성령의 징계를 통해 다루심을 받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조성되신다 — 갈 4:19, 엡 3:17상.
4.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 롬 8:28.

Ⅲ.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는 야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체험, 곧 야곱이 파쇄됨을 말해 준다.

A. 주님은 야곱이 얼마나 천연적이고 그의 타고난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그와 씨름하셨다 — 창 32:24.

1. 주님은 '야곱의 넓적다리 힘줄이 붙어 있는 엉덩이뼈를 치셨다'(창 32:32). 주님께서 신체 중 가장 강한 힘줄인 넓적다리 힘줄이 붙어 있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신 것은 야곱의 타고난 생명, 곧 그의 타고난 힘을 다루신 것을 상징한다 — 창 32:25.
2. 하나님에 의해 파쇄된 후에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똑같았지만, 내적으로는 그의 타고난 생명이 다루심을 받았다. 주님께서 다루신 것은 그의 외적인 생활이 아니었다. 주님은 바로 그의 내적인 타고난 힘을 파쇄하셨다 — 창 33:1-4, 32:25, 32.

B. 야곱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파쇄하셔야만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철저한 방식으로 다루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창 32:22-32.

1. 종교의 방식은 사람의 외적인 행위를 바꾸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방식은 사람의 내적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의 속생명을 다루는 것이다 — 고후 4:16.
2.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중요한 지점을 치실 때, 우리는 절뚝거리게 되고 우리의 내적 존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된다. 그때부터 우리는 절뚝거리며 더 이상 온전하지 않게 된다 — 창 32:25, 31.

C. 모든 믿는 이는 겉사람의 파쇄를 체험해야 한다 — 히 4:12.

1. 그리스도께서 혼의 감금에서 해방되시려면 우리의 겉사람이 반드시 파쇄되어야 한다 — 엡 3:16-17.
2. 영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한다 — 히 4:12.
3.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순수하게 흘러나오려면 우리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한다 — 요 12:24-26, 19:34, 7:37-39, 출 17:6-7.
   a. 고린도후서 4장 12절은 죽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파쇄되는 것이다.
   b. 주님은 생수의 통로가 될 파쇄된 그릇들이 필요하시다. 우리가 더 많이 파쇄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더 많이 흘러나올 것이다 — 요 12:24-26.
4. 우리 혼의 각 부분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야 한다 — 마 16:24-25.

a. 혼이 파쇄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지 않거나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우리의 의지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 살전 5:23.
b.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여전히 기능을 발휘하지만 파쇄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루심받고 굴복되고 우리의 영에 복종하게 된 것이다 — 고후 4:16, 엡 4:23, 딤후 1:7.

5.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즉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은 깨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순수한 나드 향유가 흘러나와 그 집이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찰 수 있다' — 막 14:3, 마 26:7, 요 12:3.
a. 옥합(겉사람)이 깨지지 않는다면 순수한 나드 향유가 흘러나올 수 없다 — 막 14:3.
b. 우리는 옥합을 향유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의 속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 마 26:7, 고후 4:16.
c. 겉 부분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속부분은 흘러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전진할 길이 없을 것이고 교회 또한 전진할 길이 없을 것이다 — 요 12:3.

6.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려면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한다 — 엡 3:16–17상.
7. 파쇄는 건축의 선결 조건이다 — 마 16:18, 엡 4:16.
a. 교회가 건축되려면 우리는 겉사람의 파쇄를 체험해야 한다 — 엡 2:21–22.
b. 우리가 봉사에서 다른 이들과 동역하고자 한다면 기꺼이 파쇄되어야 한다. 파쇄되지 않으면 동역은 불가능하다.
8. 바울같이 우리는 몸의 이상 아래서 파쇄되어야 하고, 몸 안에서 우리가 건축되는 유일한 길이 파쇄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 행 9:1–31, 엡 4:16.